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언론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무능과 굴욕, 욕설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영국 여왕 조문 취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만남, 욕설 파문, 구걸 외교 끝에 가까스로 열린 한일 정상 간 약식 만남까지, 모두 5박 7일 해외 순방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역대급 외교 참사다.

모든 국민들을 ‘국어듣기 평가’와 같은 수준의 욕설파문 진위 논쟁으로 몰고 갔으면, 국민 앞에 사적인 대화였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정중히 사과하면 정리가 될 문제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과 언론을 겁박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최초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대통령실 소속 대외협력실에서 욕설 영상의 존재를 기자들보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26일 영상기자단은 “시끄러운 현장이라 당시 이런 발언이 있는 것을 취재한 영상 기자들도 처음엔 모르고 있었다”라며 “오히려 대외협력실에서 해당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했기에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 따르면 영상기자단은 22일 오전 7시 20분쯤 대외협력실 공무원들이 기자단을 직접 찾아와 관련 영상을 확인해 보자고 요청하면서 윤 대통령의 욕설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한다. 이후 대외협력실에서 “영상이 보도되지 않게끔 어떻게 해줄 수 없냐”라고 보도 자제를 요청했지만 영상기자단은 이를 거부, MBC를 시작으로 148곳이 넘는 언론사에서 윤 대통령의 욕설을 보도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6일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성제 MBC 사장 사퇴와 MBC의 사과 방송을 요구했다. 국힘당은 허위 사실을 자막으로 짜깁기·조작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청와대는 국익과 동맹을 훼손하는 편파적 보도라며 적반하장격인 논평을 내어 놓기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청와대가 사고치고 부끄러움은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을 넘어 70%에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결과와 욕설 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또한 언론을 겁박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한지 우리는 지난 박근혜 탄핵촛불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국민 앞에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과대신 국민과 언론과의 싸움을 선택한다면 우리도 촛불시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22년 9월 30일
사회대개혁부산운동본부